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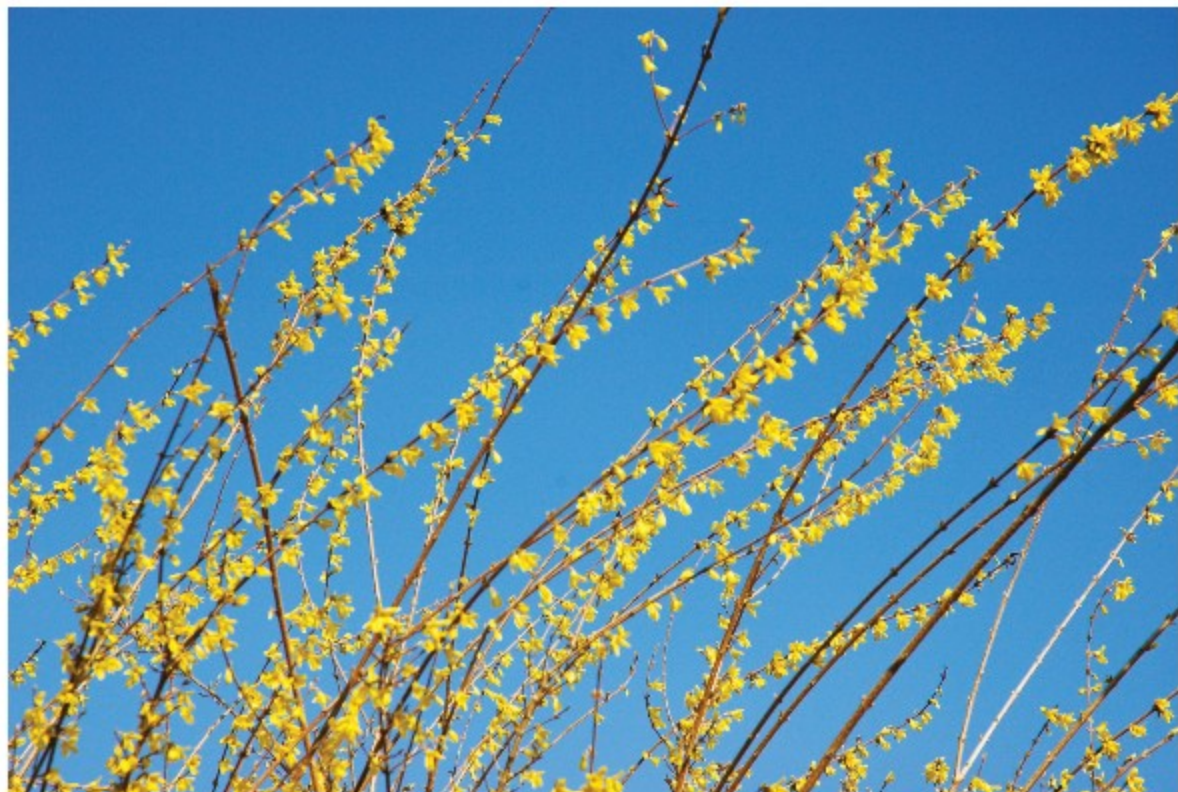
雲門

불기 2568년

봄호

통권 제16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분을 펼치다

- ※ 봄이 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우리는 마음에 부처님 씨를 뿌립니다. / 화엄반 보명
- ※ 귀 기울여 보세요, 봄바람 곁에 부처님 새싹이 자라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 화엄반 선혜
- ※ 만물이 깨어나고 꽃이 피는 계절, 운문사에는 새로운 화엄의 세계가 피었습니다. / 화엄반 도솔
- ※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명숙에서 식는 씨앗의 침묵을 배워야 한다. / 사교반 덕유
- ※ 사교의 가르침도 소임도 모두 아공我空을 향하고 있음을 마음에 되새기며... / 사교반 공림
- ※ 도량의 돌아나는 새싹을 봄, 청풍료의 새 가족을 봄, 그래서 좋은 봄 / 사집반 해인
- ※ 봄바람 좋네. / 사집반 혜산
- ※ 허공 위에 펼쳐진 운문사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만나고 있다. / 치문반 혜행
- ※ 봄날의 생명들이 저마다 노래하네. "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부터 완전한 봄입니다." / 치문반 혜엽
- ※ 매년 맞이하는 봄이지만, 치문반의 봄은 유난히 낯설면서도 익숙하네요 :) Enjoy~! / 치문반 덕산
- ※ 왔네 왔네 봄이 왔네! 이 날만을 기다렸다 피어나리 / 치문반 승묵

雲門

목차



| | | |
|----|----------------|--|
| 02 |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쳐다 |
| 04 | 죽림헌 | 각득기소各得其所의 도 닦음 명성 |
| 06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계율, 지킴과 성장의 방편 일진 |
| 08 | 교수논단 | 삼장三藏에 나타난 사제윤리師弟倫理 고찰考察 ② 영덕 |
| 14 | 외부기고 | 화심동체畫心同體 지용 |
| 18 | 학인논단 |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팔정도八正道 ① 해석 |
| 22 | 선지식 탐방 | 본무생사本無生死의 자유 금정총림 金精 방정 지유 큰스님을 찾아 뵙고... 경운 |
| 27 | 쟁 | 佛 진성 |
| 28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거울철 시자侍者를 살며 도선 |
| 30 | 화랑동산 |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 권김부 |
| 31 | 풍경소리 | 능소회를 그리며 명주 |
| 32 | 수행의 두레박 둘 | Renunciation More Than a Simple Lifestyle Change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넘은 경지 - 출가 인성 |
| 36 | 방부소감 | 봄이면 피는 치문꽃 새싹 치문반 |
| 40 | 운문, 운문인 | 사시장춘四時長春 - 우리 마음도 늘 봄처럼 - 권김부 |
| 42 | 수행의 두레박 셋 | 내 속에 숨어 있는 나 삼유 |
| 46 | 차례법문 | 관계 속의 행복, 홀로의 행복 혜건 |
| 50 | 이 한 권의 책 | 일타스님의 『시작하는 마음』 도현 |
| 52 | 운문논평 | 비움의 미학 권김부 |
| 54 | 운문소식 | |
| 55 | 등불 | 지계 이야기 |

각득기소各得其所의 도 닦음

명성 / 운문사 회주



“매화 가지에 한 송이 꽃이 핏에 족히 온 천하가 봄인 줄 알겠고, 오동잎 한 잎이 떨어지니 가을이 왔음을 알겠네. (梅枝片白에 足知天下春 梧桐一葉에 可知天下秋)”라고 하였듯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또 하나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1970년 운문사에 강사로 온 이후로 봄을 오래 볼 수 있도록 운문사 담장 둘레에 진달래, 연달래, 철쭉을 차례로 심어 놓았고 종각 옆에는 매화밭을 만들어 봄바람을 먼저 매어 두었습니다.

운문사 대웅전 뒤편의 화랑동산과 보리수 수목원에는 계절에 맞는 꽃들과 나무들을 심어 각각의 색깔로 화장세계를 이루도록 해 놓았습니다. 학인 스님들과 함께 봄맞이 도량 가꾸는 것이 나의 중요한 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해인가 수선화를 도량 곳곳에 심게 하였더니 미화반인 사교반 스님들이 피가 나서 수선화 한 무더기를 냇가에 버린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이듬해 그곳에 수선화가 가득 피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운문사 도량이 정갈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량 곳곳에 나의 눈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냥 다니지는 않습니다. 늘 염주로 나반존자, 약사여래불,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을 천 주씩 돌리며 다닙니다. 약사여래의 원력과 문수의 지혜, 관세음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사여래를 염하면서는 운문사 도량에서 수행하는 모든 대중과 나아가 일체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나 복덕을 구축하여 정각을 이루어지이다라고 발원합니다.

또 문수보살을 염하며 문수의 지혜를 배워 자·비·희·사 4무량심을 행하고 보리심을 내어 정각의 길에 올라지이다라고 발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는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이루어 천수천안으로 중생의 아픔을 구제하고 모두 정각을 이루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염불하며 도량 곳곳을 다니면서 손길과 눈길이 필요한 곳을 살펴 제자리를 찾아주고 철에 맞는 꽃들로 장엄하는 것은 사물 사물이 각기 그 자리를 제대로 얻을 때, 놓여야 할 곳에 알맞게 놓일 때 (物物而各得其所) 비로소 매사에 참된, 즉사이진即事而眞의 무애無碍한 도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운문사에서 수많은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봄날이 유독 기다려지고 설레지는 것은 갓 출가하여 승가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스님들 때문입니다. 한 해의 첫 계절에 신입생 스님들이 방부들 들이면 각각의 소임이 짜지고 용상방龍象榜에 이름을 올려 운문의 도량이 각자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4년간의 강원 생활은 '자신의 마음자리부터 시작하여 외부의 모든 일에 진실(即事而眞) 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굴러다니는 돌, 풀잎 하나라도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진정 아름답듯이 그 첫 발자국이 법당이나 큰방 등 어디에서든 제대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아는 것이고 각자의 주어진 소임에 진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제자리를 찾을 때 진정 머무를 곳이 없는 데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첫 마음(初心)과 마지막 마음(畢竟心)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하나이긴 하나 첫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 낸 마음이 퇴색되거나 물러나지 않도록 잘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ॐ

계율, 지킴과 성장의 방편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울주

“수행자들이여, 내가 멸도한 후에는 마땅히 계율 존중하기를 어둠에서 광명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같이 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큰 스승인 줄 알라. 내가 세상에 더 머물다 할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유교경遺教經은 부처님께서 입멸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자비하고 절실한 가르침이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야 하며 그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명심해야 할 일이다.

계戒, 정定, 혜慧는 불자가 배워야 할 세 가지라 하여 삼학三學이라고 한다.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우고 닦아갈 수는 없다. 삼각대의 한 쪽이 짧으면 결국 기울어져 쓰러지듯이 선정과 지혜가 없는 계율은 너와 나를 분리하고 결국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수승한 지혜로 지키는 계율은 세상을 맑히고 건강하게 하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결국 완전한 행복과 깨달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대열반경」에서 부처님은 계를 지키지 않을 때 오는 다섯 가지 위험 중 세 번째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다. 몇 년 전 방송 매체에서 아이들에게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자아존중감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룹과 낮은 점수를 받은 그룹을 팀으로 구성해서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상을 준다고 했는데, 자존

감이 높은 그룹의 아이들은 점수에 개의치 않고 게임의 룰을 충실히 지키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그룹의 아이들은 룰을 무시하고 점수와 상에 급급해서 우왕좌왕 게임을 하는 형태를 보였다. 실험은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라는 속설을 뒤집고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고 삶에 만족감이 높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2,500년 전 부처님 말씀을 확인시키는 실험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부처님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만일 계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삼악도에 떨어져서 인간의 몸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거늘 어찌 중생들의 성장을 돕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해서 일체지一切智를 갖추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선정과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라는 사다리가 필요하심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다리는 절대적인 모양이 있어 고정된 것이 아니듯 계율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과 조건, 시대와 문화를 고려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중도적 수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연기적 수행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계율의 본질은 선정과 지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뗏목이고 수단이지, 수행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계율은 오직 선정과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다리임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자애로움과 연민이라는 이름의 계율로 세상을 밝히고 주변을 평화와 조화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율을 위한 계율, 즉 '지키기 위한 계율'에서 벗어나 '우리를 열린 세계로 성

장시키기 위한 계율'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탄력성 있는 평온한 마음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에서 나오는 지혜로 지키는 계율이야말로 웰빙과 행복을 돕고 막힌 관계를 소통시키며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생활 규범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다. ☸

三藏에 나타난 師弟倫理 考察 ②

영덕 / 운문시승가대학 학장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三藏에 나타난 師弟倫理
 1. 붓다의 교육원리와 교수법
 2. 초기불교의 사제윤리
 - 1) 여래십호를 통한 스승상
 - 2) 『六方禮敬』에서 읽는 사제윤리
 - 3) 『마하박가』에 규정된 弟子法과 화상의무
 - 4) 『사분율』에 나타난 제자상
 3. 대승불교의 사제윤리
 - 1) 大乘經典에 보이는 師弟倫理觀
 - 2) 『四分律僧羯磨』에 나타난 師資篇
 - 3) 『菩提道次第論』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
 4. 붓다 가르침의 현대적 의미
- III. 나오는 말

참고문헌

2. 초기불교의 사제윤리

2) 『六方禮敬』에서 읽는 사제윤리

『육방예경』¹⁾은 출가한 장자의 아들 시가라월(Singāḷaka,尸迦羅越)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출가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불교의 사제윤리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되는 경전이다. 먼저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자세에 대하여 다섯 가지 도리를 말한다. ① 스승을 함부로 보거나 가볍게 보지 않고 공경히 여겨야 한다. ② 스승의 가르침과 보살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 ③ 스승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르치신 바를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④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사색하여 밝게 알고 그 내용을 가슴속에 명심하여 즐기게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 ⑤ 항상 스승을 우러러 칭송해야 한다. 이것을 줄여서 다시 말하면 ① 공경히 모시고 ② 감사하게 여기며 ③ 가르침을 따르고 ④ 깊이 탐구해 명심하고 ⑤ 스승을 찬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경과 감사 및 칭송은 배움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제자가 스승을 대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르침의 내용이 단순한 지식이나 의례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대로 실천되고 인격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향상의 과정 속에서 학구열은 더욱 즐거운 일이 되고 증진되어질 수 있다. 반면 제자의 윤리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스승의 입장과 자세가 파악이 된다. 스승은 제자로부터 공경과 감사 및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그리하여 바르고 밝게 가르쳐 제자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진정한 학구의 정신에 눈을 뜨고 매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이끌어 주어야 한다. 스승의 교육애와 도리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니 ① 제자가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른 사람의 제자보다 훌륭하게 성장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해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④ 의심이나 막히는 것이 없도록 가르친다. ⑤ 제자가 자신보다 뛰어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철저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승 자신의 학구와 교수의 방법이나 기술의 연마뿐 아니라 훌륭한 인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윤리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사랑과 자비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불타의 성도 후의 전 생애는 그 자체가 자비로운 삶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승과 제자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자비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바로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제자의 스승 섬김은 배움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행이며, 스승의 제자 사랑도 가르침과 관계된 사랑의 실천행이다. 위의 인용문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자와 스승이 지녀야 할 윤리에 대한 불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불타의 인격적 특징은 ‘悲智圓滿 自覺覺他 覺行圓滿’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지혜와 그 지혜에 의하여 발휘되는 실천적 삶의 정서로서 자비와 같은 이른 체계가 발전된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자비는 지혜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이요, 참된 지혜는 자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이 지혜를 통하

여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과 같다. 참된 사제윤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발휘되는 사랑의 윤리이니 이는 곧 지혜와 자비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사제윤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3) 『마하박가』²⁾에 규정된 弟子法과 和尚의 의무

(1) 화상을 모시는 제자법

① 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한 뒤 상의를 입고 화상³⁾을 위하여 양칫물, 세숫물을 준비해 드리고 좌구를 정돈한다. 만약 죽이 있으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 죽을 드리고 스승이 죽을 다 드시면 물을 올린 후 상을 물린다. 그릇을 깨끗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씻어 제자리에 놓는다.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자리를 정돈한다.

② 스승이 마을에 가시고자 하면 외출복을 준비해 드리고 집에서 입던 옷을 받아 정돈하고 허리띠와 大衣를 접어 준비해 드리며 깨끗이 씻은 물통에 물을 넣어 드린다. 만약 스승이 함께 가기를 바라면 함께 따라 간다. 도중에 스승의 걸을 떠나지 말며 또 너무 바짝 붙어 다니지 말아야 한다. 스승의 말씀 도중에는 말을 가로채어 참견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상이 계율에 어긋나는 말을 할 경우에는 주의를 해드릴 수 있다.

③ 스승이 돌아오실 때에는 먼저 와서 방석과

1) 한역 『佛說尸迦羅越六方禮經』이라고도 한다. 디가니까야의 『상갈라에 대한 가르침 경』, 중아함권33의 『善生經』에 해당한다.

2) 최봉수, 『마하박가 1』, 시공사, 1998, p.126~133. 율장대품 Mahavagga 『南傳』 제3권

3) ‘和尚’은 바르게 부르면 ‘鄒波駄那’이다. 번역하면 ‘力生’이니 스승의 힘을 빌어서 法身을 장양하고 공덕의 재물로써 지혜의 눈을 기르는 까닭이다. 또한 번역하면 ‘羅漢師’라고 하니 친히 가르침을 받아서 세업을 벗어나는 까닭이다. 또한 각각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刹’이라고 말하며, 항상 부처님을 향하여 평안하게 머무는 것을 ‘刹’이라고 한다. 십 년간 계율을 엄정하게 지키면 율에 준해서 시람을 제도할 수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和尚이라고 한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鉢盂를 받아 쟁기며法衣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정돈한다.

④ 스승이 음식을 드시고재(施食) 하면 물을 올리고 음식을 준비한다. 스승이 식사를 끝내면 물을 올리고鉢盂와 방석을 정리하고 청소한다.

⑤ 스승이 목욕을 하시고자 하면 목욕준비를 하고 자신도 욕탕에 들어가 스승의 목욕을 도와드리고 같이 나온다.

⑥ 목욕할 때 제자는 몸을 빨리 씻고 말린 뒤 옷을 입고 스승의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준비해드린다. 목욕탕에서 의자를 준비하여 피곤함이 회복되도록 도우며, 화상에게 마실 물이 필요한지 여쭙어야 한다.

⑦ 스승이 제자들로부터 설법의 청을 받으시려 하면 제자는 스승에게 설법을 청하고, 스승이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고자 하시면 질문을 한다. 만약 스승이 거처하는精舍가 더러우면 제자는 빨리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할 때 좌구 등을 햇볕에 내놓고 턴 다음 본래 자리에 두어야 한다.

⑧ 침상을 준비할 때는 문이나 기둥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밖으로 꺼내어 한쪽에 놓아야 한다. 만약 정사에 거미줄이 있으면 보는 즉시 없애야 한다. 그리고 물을 골고루 뿌려 정사가 먼지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생활용품을 관리하여 땅에 까는 부구, 침상, 요, 베개 좌구는 햇빛에 말려서 먼지를 털어 깨끗이 한 다음 가지고 들어와 본래 있던 곳에 두어야 한다.

⑩ 발우와 법의는 항상 제자리에 잘 정돈하여야 한다. 발우를 땅에 놓아서는 안 되고 법의의 가장 자리는 바깥쪽으로 하고 겹쳐진 부분을 안쪽으로 하여 걸어 두어야 한다.

⑪ 바람이 불 때는 창문을 잘 단속한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낮에는 창문을 열고 밤에는 닫아야 한

다. 겨울철에는 햇빛 쪽의 창문을 열고 밤에는 닫고, 여름철에는 햇빛 쪽 문을 닫고 밤에는 연다.

⑫ 房舍, 藏庫, 勤行堂, 廚房, 便所 등이 더러우면 빨리 청소하고 음료, 식료는 항상 비치해 두고 물통에는 물을 항상 준비해 둔다.

⑬ 만약 화상이 불쾌해하시면 제자는 스스로 그 불쾌감을 없애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없애도록 하든가, 아니면 화상을 위하여 여법하게 위로해드려야 한다. 화상이 만약 후회하시면 제자는 스스로 그 마음을 없애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없애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상을 위하여 여법하게 위로해드려야 한다. 惡作, 邪見을 일으키시면 제자는 스스로 그 생각을 단념하게 해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단념케 하든가, 아니면 화상을 위하여 여법하게 위로해드려야 한다.

⑭ 만약 화상이別住⁴⁾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무거운 죄를 범했다면, 승단에서 화상에게 별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제자가 청해야 한다. 화상이根本除去⁵⁾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제자가 화상에게 근본제거의 처분을 내리도록 승단에 청해야 한다. 화상이摩那⁶⁾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제자가 승단에서 화상에게 마나타의 처분을 내리도록 청해야 한다. 화상이出罪⁷⁾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제자가 승단에서 화상에게 출죄의 처분을 내려주도록 청해야 한다.

⑮ 승단에서 스승에게苦切⁸⁾, 依止⁹⁾, 擯出, 下意¹⁰⁾, 擧罪의 갈마¹¹⁾를 시행하고자 하면 제자는 힘써 승단이 화상에게羯磨를 시행하지 않도록 청하거나 또는 가볍게 하도록 청해야 한다. 만약 승단에서 화상에게 갈마를 일으키면 제자는 힘써 화상이 그 처분에 순종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청정을 회복하도록 힘쓰며, 승단에서 갈마를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⑯ 만약 화상이 범의를 만들거나 세탁하거나 염색하거나 할 때에 제자는 힘써 이것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청해서 만들도록 해야 한다.

⑰ 화상에게 여쭙지 아니하고 남의鉢盂, 法衣, 資具를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 또, 남의 머리를 깎거나, 남에게 봉사하거나, 세속의 얘기를 하거나, 남의 施食을 나르거나 또는 이 같은 일을 남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 화상에게 여쭙지 않고 마을에 가거나 묘지에 가거나 지방에 멀리 가도 안 된다. 만일 화상이 병이 나면 생명이 있는 한 간병하고 완쾌하도록 힘써 드려야 한다.

제자들은 이상과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면 악행의 죄에 떨어진다.¹²⁾

(2) 화상의 의무

① 화상은 說示, 質問, 教誡 등에 의하여 제자를 교화하고 보호한다. 화상은 발우, 상의, 자구 등

必需品을 준비하여 제자에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② 제자가 병에 걸렸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양치준비와 죽을 주는 등 제자가 화상에게 하듯이 보살피 준다.

③ 제자가 마을에 갈 때는 군[下衣]·부군을 받아 놓고 띠를 준다. 돌아오면 좌구를 펴 주고 족대·족포도 펴 준다.¹³⁾ 시식이 있어서 제자가 밥을 먹을 때는 물을 준다.

④ 제자범 중 ④-⑤의 내용은 화상도 제자에게 똑같이 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⑥ 제자가 병에 걸리면 가까이서 돌보아 주고 쾌유를 빈다.

⑦ 제자가 상의를 세탁할 때는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고 세탁하게 한다. 제자가 염료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의를 염색할 때는 반복하고 뒤집어서 염색하도록 하며, 물방울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지 않는다.¹⁴⁾

4) '別住'는 다른 비구들과 분리시켜 따로이 홀로 살게 하는 것. 性的인 악습이나,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등의 죄를 지은 비구에게 죄를 짓고 숨기고 있었던 동안만큼 따로이 홀로 살게 하여 참회토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5) '根本除去'는 죄를 지어 별주하는 사이 또다시 죄를 지어 다시 처음부터 별주하는 것을 말한다.

6) '摩那埵'도 일종의 별주 처분이지만, 기본적인 별주가 죄를 숨긴 기간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지는 데 비해 마나타의 별주는 비구는 언제나 6일(비구니는 15일) 동안을 별주하는 것이며 또 마나타의 별주 기간이 끝나면 죄를 모두 사한 것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7) '出罪'는 적법한 처분을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범한 죄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8) '善切'은 논쟁이나 말싸움을 부추기는 등의 죄를 범한 비구에 대해서 세 번을 충고하여 엄주도록 하는 징벌을 말한다.

9) '依止'는 나쁜 버릇이 있는 비구의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 그 비구를 훌륭한 인격을 지닌 비구에게 잠시 맡겨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게끔 하는 갈마이다.

10) '下處'는 재가인의 분노를 산 경우에 승가의 결의로 그 재가인에게 사과하도록 명령하는데 이에 관련된 처벌 절차가 '조정 갈마'이다.

11) '辜罪' 갈마인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참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쁜 견해를 버리지 않는 경우, 그 비구를 별주하게 하는데 단순한 별주는 죄를 범한 비구가 스스로 청하여 받는 것이지만 정권 갈마에 의해 받는 별주는 승단으로부터 강제로 받는 것이다.

12) 최봉수, 『마하박가 1』, 시공사, 1998, p.126~133.

13) 전재성, 『마하박가-음장대품』, 한국불리성전협회, 2014, p.174 '만약 제자가 마을에 들어가고자 하면, 下衣를 건네주고 입고 있던 下衣를 받아준다. 두 겹 내지 네 겹으로 접어 만든 허리띠를 주어야 하며, 돌아온 후에는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을 물과 발받침과 발걸레를 준비하여 맛있게 발우와 옷을 받고 下衣를 주고 입고 있는 下衣를 받아야 한다.'

14) 사토우 미츠오, 『초기 불교교단과 계율』, 김호성 옮김, 민족사, 1991, p.93~94

이것이 앞의 제자법에 대응하는 화상의 제자를 향한 의무조항이다. 화상과 제자 상호간에 평등하게 서로 봉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3) 화상이 제자의 허물을 경책하는 呵責法

제자가 화상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화상은 제자를 벌할 수 있다. 『팔리율』에는 이것을 「구출驅出」이라 한다. 구출할 때에는 「그대를 구출한다. 여기에 돌아오지 말라. 그대의 의발을 가지고 나가거라. 나에게 급사給使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고 제자를 보낸다. 『五分律』에는 이것을 「不共語法」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함께 말하지 않는 것(不共語)에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며, ① 그대는 나와 함께 이야기하지 말라. ② 그대에게 할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말하지 말라. ③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④ 내 의발을 취하거나 나의 여러 가지 일을 도우려 하지 말라. ⑤ 와서 나에게 보이지도 말라는 등의 말을 건넨다.¹⁵⁾

인간은 남녀노소와 계층의 구별을 불문하고 인간 개개인이다 존엄하며, 의식 무의식 간에 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학습자 개개인의 인격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聖職的인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화상이나 선지식의 원래의 뜻은 「힘을 주는 자」, 「좋은 벗」을 뜻하는 말이다. 초기불교의 경전에는 진정한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불법의 성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이룬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기불교의 공동체는 그 자체가 모두 좋은 벗으로서의 우정의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전에 의하면, 선지식의 역할은 대체로 악행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막혀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깨우쳐주며 항상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4) 『四分律』에 나타난 사제상

『사분율』의 「수계건도」에서는 부처님과 화상 그리고 아사리를 통해서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분들과 만난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부처님과 제자의 관계이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설법을 하시게 된 것이 사제관계를 맺게 된 인연의 시작이다.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한결같이 사제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조건이 바로 受戒의 과정이다. 제자가 발심하여 부처님의 제자 되기를 청하면 구족계를 주셨고 그로 인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된다. 두 번째는 화상과 제자의 관계이다. 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 또한 수계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부처님은 조그마의 흠도 없이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화상은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승 또는 제자 입장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화상으로서 또는 제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동등하게 꾸짖으셨다. 화상은 구족계를 준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면, 제자는 배우는 자로서 스승을 의지하여 수행하며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사분율」의 「수계건도」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함으로써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스승의 근본 역할이라면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덕목은 「부처님을 모시듯 스승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였다. 율장에서는 우선 스승과 제자가 사제관계를 맺는 데 있어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제 간 인연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佛法의 전수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율장에 의하면 제자가 스승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출가의지가 확실해야 하며 부모로부터 출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후 스승은 본인에게 출가하고자 하는 의사를 재확인

인한 뒤 머리를 쥐아주고 가사를 입히며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맹세를 하게 한다. 이후 출가했음을 증명하는 말을 본인 입으로 스스로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출가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함으로써 비로소 정식으로 사제관계가 맺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세속에서 벗어나 스승으로부터 수승한 법을 성취하겠다는 초발심이 갖춰진 제자만이 올바른 수행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언제나 지속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四分律』에 의하면 제자가 스승에 대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스스로 스승의 곁을 떠나거나, 수도를 쉽게 포기하거나, 의지사가 되어줄 분을 찾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계를 받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서면 그 순간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며, 스승의 곁을 떠나야 한다. 결국 제자가 스승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으면 스승은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①제부끄러움(慚)이 없거나 ②남부끄러움(愧)이 없으며 ③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④威儀 없는 행위를 하며 ⑤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을 때 앞의 5가지 규정위반에 해당되는데도 제자를 빈출하지 않은 화상이 있으면 그 화상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였다.¹⁶⁾ 한편 戒律을 범한 제자를 指導할 때 '네가 한 짓은 옳지 못하다. 威儀가 아니며, 沙門의 법이 아니며 隨順하는 行이 아니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잘못을 지적해 주고, 이해시키고 훈계하며 참회시켜 다시 범하지 않도록 指導하였다. 『四分律』에는 이것을 「呵責法」이라고 한다. 가책법의 방법은 '나는 그대를 가책한다. 그대는 가거라. 그대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대는 나를 위해 심부름을 하지 말라. 그대는 내 아래에 오지 말라. 그대와 이야기하지 않겠다.' 는 등의 말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책을 일생 내내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환자일 때 가책해서도 안 되며, 현전에 없는 자를 가책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그 과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가책해서는 안 되며 가책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도록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상가의 형벌에는 바라이나 승잔처럼 엄한 것도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사사로이' 벌할 때에는 것처럼 엄한 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고작해야 자기의 슬하에서 내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빈출당한 제자는 여법하게 허물을 뉘우치지 않으면(悔過) 안 된다. 허물을 뉘우치면 빈출이 해제되므로 빈출에 의해 화상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덕목은 불법의 전승과 승단의 화합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율장뿐 아니라 불교의 수많은 경전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 호에 계속)

15) 『마하박가』, 平川彰 『원시불교의 연구』, p.561

16) 김봉식, 『원시불교 교단의 사제윤리』, 동국대학교, 1981, p.19

화심동체 畫心同體

지용 /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어느 겨울날 한 사찰의 조왕탱화를 요청받고 이제 완성을 하고 보니 어느새 통도사 홍매가 꽃망울을 터트리 봄 향기를 비 내리고 있다. 천연 석채를 사용하여 그린 불화로 아침 햇살에 더 선명하고 밝아서 저절로 신심과 환희심이 일어난다.

출가한 지 벌써 30년하고도 몇 년이 훌쩍 넘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열아홉의 어린 나이에 발심 출가를 하였다. 운문사 강원을 졸업하고 연불을 거창하게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조계종 어산 어장이신 동회스님과 인연을 맺었으나 몇 년간의 배움을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남겼다. 그 인연인지 한 번쯤 천일기도를 하라고 권유해주신 어른 스님의 말씀에 천일간의 기도를 시작하여 회향까지 3년간 정진하였다. 기도 중 약간의 자투리 시간을 좀 더 알차게 꾸미고 싶어 서예를 시작하였다. 의외로 집중이 잘 되었고 붓으로 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연히 불화를 접하게 되었고 무한 반복된 기초를 익히는 작업이 힘들고 지루하기도 했으나 오롯하게 걸어온 시간이 벌써 18년이나 되었다.

시작은 취미였으나,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이신 석정스님께 원공圓空이란 화호와 함께 이수증을 받았다. 이론적 토대를 위해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에 진학하여 대학원 졸업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으나 금호 약효 - 보웅 문성 - 금용 일섭 - 해봉 석정 - 연당 조해종을 거쳐 불교회화의 화맥畫脈이 나에게 이어져 오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 분야는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우거나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의 경우는 출가하고 한참 지난 30대 초반에 불화를 알고 접하게 되어 어려움도 많았다. 주로 엎드린 한 자세로 하다 보니, 배불리 먹으면 호흡하기 힘들고, 자세도 많이 들어진다. 여름철 더운 날 에어컨을 틀면, 아교가 빨리 굳기에 더위를 참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세밀한 작업을 하다 보니 시력이 중요한데, 이미 노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서예, 불화는



이생에서 내가 선택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다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공을 들여 낳으셨다는 얘기를 출가하고 한참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칠성탱화를 한 점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한 동작을 오래 했더니 오른손과 팔이 꿈쩍 달짝하지 못할 아픔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었고, 일 년간 불편함으로 지냈었다. 모든 걸 왼손, 왼팔만 사용하였더니 심장이 툭 내려앉는 줄 알았다. 문득 칠성탱 초라도 뜨면 괜찮아질까 하는 간절함이 생겼다. 아픈 오른손과 팔로 밤늦게까지 며칠 동안 계속 초를 떴다. 늦은 밤 마무리하고 깜박 잠이 들었다. 잠결에 손을 까딱까딱하면서 팔을 움직였는데 멀쩡한 듯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움직여 보았더니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멀쩡하다. 그 당시 칠성탱 초 뜬 위에 삼배의 절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감사의 눈물을 한참 동안 흘렸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싶다. 화두 삼배, 기도 삼배에 드는데, 나는 불화 삼배에 들어 아픔이 사라진 격이다.

불화를 그리는 것 또한 교학의 이해와 신심과 원력이 근본이다. 신라·고려는 물론 조선 초기까지만 하여도 불화를 제작하는 불모佛母들은 불전佛典에 대한 지식이나 원력願力과 신심信心이 있어 우수한 불화를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임란壬亂 이후에는 불모佛母 자신이 불전佛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만 신심信心만으로 불화를 보고 그리거나 고초본을 모사模寫해서 입채



칠성탱화 초



入彩하는 정도로 퇴보하였다. 그러다 18세기 이후 우수한 불화가 승려들에 의해 상당수 제작되었다. 이때의 거장巨匠으로는 유성裕聲, 의겸義謙, 신겸信謙과 같은 대불모가 있어 우수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뛰어난 불화들은 대부분 이 계파들의 작품이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불모의 초본草本을 익혀 그리거나 모사模寫하는 전통이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며 전통불화의 맥을 형성하였다. 20세기 전반

은 대불모 석옹당石翁堂 철유와 고산 축연竺演 몇몇 우수한 불모들이 불화계를 이끌어왔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찬란하였던 전통은 더 향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금용일섭金容日燮, 해봉석정海峯石鼎은 고탱화와 채색에 대한 남다른 원을 세워 전통의 명맥을 이어갔다.

조선후기 우수한 불화가 많이 제작된 이유 중의 하나는 대찰에 불모를 양성하는 불사소佛事所와 화승畫僧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불사소에서 불화를 그리는 불모佛母의 마음가짐을 보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목욕沐浴하고, 옷을 바꿔 입고 탕화幬畫에 임하였고, 작업하는 동안에는 법력 있는 증명법사證明法師가 정좌定座하여 정진精進하고, 송주법사誦呪法師는 붓을 놓을 때까지 쉬지 않고 송주誦呪하였다. 특히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불모佛母도 계행戒行과 재계齊戒를 지니 불사 중에는 산문山門을 출입하지 않고 오직 불사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이 현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더구나 불화의 맥을 잇는 불모 가운데 승려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불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며 환희심과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성보聖寶이다.

불교 경전을 토대로 하는 전통불화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우선 고탱화古幬畫를 열심히 모사模寫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찰에서 탕화를 모시고자 의뢰하면 불모는 탕화幬畫를 그릴 때 최소한의 지계持戒는 물론, 일단 보수報酬를 정한 뒤에는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오직 부처님을 믿는 신심信心으로, '이 불화를 친견親見하는 모든 이는 신심信心을 발發하소서' 라는 원력願力에 의해 붓을 잡아야 한다. 모든 과정과 결과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원력願力의 지계와 청정이 근본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불화佛畫는 타고난 천재天才일지라도 신심과 원력이 부족하거나, 뛰어난 불모 아래서 정진精進하지 않으면 양질良質의 불화를 제작할 수 없다.



조선시대의 불모佛母 중 모범模範이 되는 불모佛母의 일화 하나가 있다. 조선후기 18세기경 조계산曹溪山 선암사仙巖寺에는 윤충각이라고 불리는 쾌윤불모快允佛母가 있었다고 한다. 쾌윤은 출가하지 않고 머리를 땅아 내린 충각 신분으로 승려들과 같이 계행戒行을 지키며 절에 살면서 오른손을 늘 싸매고 다녔는데, 다만 불화佛畫를 그릴 때만 풀어서 사용하였고, 그 외 모든 일은 왼손으로 했다고 한다. 즉 오른손은 오직 불화佛畫 그리는 데만 사용하였던 것이다. 부처님을 향한 불모佛母의 지극한 정성의 마음과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입적하신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 불화장 석정스님의 불화佛畵 6칙六則의 계문偈文은 오늘날 불화를 하는 불모들에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 一.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으로 불화佛畵에 임臨할 것
- 二. 전통傳統을 고수固守할 것
- 三. 불화佛畵를 맡은 뒤 보수報酬의 다과多寡를 헤아리지 말 것
- 四. 불화책임자佛畵責任者의 성의유무誠意有無를 생각하지 말 것
- 五. 불화당사佛畵當寺의 우열優劣을 상관相關하지 말 것
- 六. 모든 조건條件을 초월超越하여 불화의 원만圓滿을 기期할 것



영락도

불모인 나는 스님들이 전통불화에 많은 관심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옛 탕화 화기를 보면 스님들이 수행의 한 방법으로 탕화 불사에 직접 동참을 하였다. 계戒를 인하여 정定이 생기고 정을 인하여 혜慧가 발現된다 하였듯이 불화는 이 모든 것을 갖춰야만 성보聖寶로서의 불화가 완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출가 수행자만한 불모가 있을까 싶다.

오늘도 화심동체畵心同體의 마음, 신심과 원력으로 불화의 원만圓滿을 바라며,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의 마음가짐으로 전통불화의 맥을 이으며 정진하고 정진한다. ॐ



원공圓空 지용

운문사승기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졸업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천테예술공모대전 <불화> 장려상, 대구·부산·경북 신라미술대전 <불화> 입상

불사약력

통도사 반야암(후불, 신중, 감로탱), 경주 용문사(신중탱), 영주 정혜사(삼신불탱)
 일산 금어사(지장탱), 부안 해원사, 창녕 신흥사, 광양 백운사, 라스베이거스 보리사(조왕탱)
 광주 정평사(산신탱), 진주 송학사(산신탱), 제천 강천사(아미타탱, 신중탱) 등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팔정도八正道 ①

해석 / 사교과(3학년)

목 차

1. 들어가며
2. 八正道の 계戒의 요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 2-1. 바른 말[正語]
 - 2-2. 바른 행위[正業]
 - 2-3. 바른 생계[正命]
3. 八正道の 正定の 요소: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 3-1. 바른 정진[正精進]
 - 3-2. 바른 마음챙김[正念]
 - 3-3. 바른 삼매[正定]
4. 八正道の 혜慧의 요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 4-1. 바른 견해[正見]
 - 4-2. 바른 사유[正思惟]
5. 열반과 도道와 果果
6. 나가며

1. 들어가며

우리가 알던 행복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괴로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八正道の 길목에 들어서게 된다. 八正道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인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길이다.

이 글에서는 괴로움을 종식하는 성스러운 여덟 가지 길인 八正道の 각 요소를 살펴보고 괴로움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멈추게 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八正道の 마지막 단계 즉 고통의 완전한 소멸인 열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부처님은 번뇌가 잠재적 성향의 단계, 드러나는 단계, 범함의 단계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치신다.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것이 '잠재적 성향(anusaya)'의 수준으로서, 여기서는 번뇌가 아무런 활동도 보이지 않고 다만 잠복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수준인 '드러나는(pariyutthana)' 단계에서는 번뇌가 여러 자극에 영향 받아 갑자기 강화되어 생각, 감정, 의욕 등의 형태로 마음의 표면 위로 물밀듯이 떠오른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의 '범함(vitikkama)'의 단계에서는 번뇌가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몸이나 말로 짓는 불선한 행위를 유발하기에 이른다.

2. 팔정도에서 계戒의 요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팔정도의 요소는 이 세 층의 번뇌에 대응하여 각 번뇌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인 계戒, 正定, 혜慧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계의 범주는 가장 거친 '범함 단계'의 번뇌를 종식시키기 위한 수행 요소이며 팔정도에서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계(正命)의 세 가지 요소를 계의 범주로 묶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실천하는 높은 도덕적 훈련을 통해 불선한 성향이 몸과 말을 통해 업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번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수행의 초장부터 이들의 활동을 철저히 제어한다.

2-1. 바른 말(正語)

계의 범주 중 첫 번째 요소인 바른 말이란 올바른 언어적 행위를 가리킨다. 올바른 견해나 올바른 사고방식에 입각한 말은 올바른 말이 된다. 바른 말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마하위방가(Mahāvibhanga, 대분별大分別)의 빠찌띠야(pācittiya, 바일제波逸提)¹⁾ 1번 '거짓말하지 않기' 계목의 정의를 살펴보면, 의도적 거짓말은 사실을 거짓 전달하려는 목적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의된다. 주석서에 따르면 말뿐만 아니라 글이나 몸짓으로 전달하는 허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침묵으로 전달하는 허위는 마하와가(Maha-vagga, 대품大品)에서 빠띠목카(pāṭimokkha,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암송을 듣는 동안 비구가 참회하지 않은 범계를 기억했는데 그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면 그러한 행위는 의도적 거짓말로 간주한다. 마하와가는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빠찌띠야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범계인 둑까따(dukkata, 악작죄惡作罪)²⁾를 부과한다. 침묵으로 그릇된 전갈을 전

달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기(不妄語)'의 완전한 범계 요소는 충족되지 않는다. 동기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이해하든 속든 관계없이, 사실을 잘못 전달하려는 그 목적이 거짓말을 충족시킨다. 자신이 아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혹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들은 것을 본 것으로, 본 것을 들어서 안 것으로, 잘 모르거나 헛갈리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과장이나 빈정대는 말은 모두 거짓말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이 계율에 저촉되고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여기에 해당하기에 말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진실인 줄 알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바른 말을 하려는 이는 거짓말을 삼가고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진실한 말과 지혜, 이 두 가지는 각각 참된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외적·내적으로 드러난 형태이다. 진실을 실현하려면 다른 이와 의사소통을 할 때도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진실한 말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현상 사이의 일치성을 확립시킴으로써 지혜가 생겨나서 그들의 참 성질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 원칙의 범주를 훨씬 넘어 욕구가 빚어낸 공상이 아닌 지혜로 파악한 진실에 발을 딛고 서게 한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올바르지 않은 말은 거친 말이다.

거친 말은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독설'이다. 독설은 욕하거나 꾸짖는 형태의

1) pācittiya: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2) dukkata: 사소한 학습계율을 범한 경우로 누우치고 참회하는 것으로 벗어나는 죄.

말이다. 둘째는 모욕이다. 빠삐띠야 2번의 '모욕하지 않기' 항목을 살펴보면 모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불명예를 초래할 의도로 하는 몸짓, 주장, 글로 쓰인 것, 말한 것이다. 위방가는 다음 열 가지 주제를 언급하는 비구는 모욕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열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출생, 인종, 계급, 국적 ②성 ③이름 ④직업 ⑤기술 ⑥질병(장애) ⑦신체적 특징 ⑧번뇌 ⑨범계 ⑩지열한 표현과 욕설 형태의 호칭이 그것이다.

셋째는 빈정거림이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 하지만, 그 억양이나 말투로 보아 빈정대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남을 괴롭히는 형태의 말이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올바르지 않은 말은 이간질하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는 이간질하는 말을 피하고 이를 떠나야 한다. 여기서 들은 말을 저리 가서 옮기거나 저기서 들은 말을 이리로 옮김으로써 불화를 조성하지 않는다. 서로 들어진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의 화합을 복돋운다. 화합은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는 화합을 기뻐하고 즐긴다. 이처럼 그가 말로써 널리 퍼뜨리는 것은 바로 화합이다.”³⁷

위방가의 빠삐띠야 3번 '중상하지 않기' 정의를 보면 호의를 얻거나 불화를 일으키려는 바람으로 다른 비구가 앞에 살펴본 '모욕' 하기 위한 10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언급한 내용을 다른 비구에게 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다른 비구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비범계의 경우 호의를 얻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것 이외의 동기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범계가 아니다. 한 비구가 다른 비구의 중한 범계를 밝힐 때 선

배 비구에게 알려서 갈마가 상가 내의 화합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종 차별주의자를 비판하는 선배 비구의 제자에 대하여 선배 비구에게 말하여 그것을 그만두게 하는 경우는 중상의 범계로 치지 않는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올바르지 않은 말은 쓸데없는 말, 잡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는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이를 떠난다. 그는 때에 맞게 말하고, 사실에 부합되게 말하고, 유용한 말을 하고, 법과 계율을 말한다. 적절한 때에, 절도를 잃는 일 없이 온유하면서도 사리에 꼭 맞게 하는 그의 말은 보석과도 같다.”⁴⁷

우리는 타인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법다운 말만 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잡담은 삼가야 한다.

2-2. 바른 행위(正業)

다음으로 살펴볼 팔정도의 계의 묶음 두 번째 요소는 바른 행위이다. 바른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질 수 있는데,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음,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음, 부정한 성행위를 하지 않음이 그것이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음을 살펴보자면 주석서들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행위가 범해지는 여러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을 예로 들자면 절도, 강도, 날치기, 사취, 속임수 등이 있다. 불살생 계율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일으키는 살생의 의도이다. 자살 또한 불살생 계율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생명을 앗으려는 의도가 없는 우발적 살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계율은 일차적인 행위와 이차적인 행위 모두에 적용된다. 일차적인 행위는

실제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차적인 행위는 죽이지는 않더라도 다른 존재를 의도적으로 해치고 괴롭히는 행위다. 부정한 성행위에서 부적절한 상대는 각각 남성의 경우 다음 세 부류의 여성들이다. ①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한 여자, 부모, 친척, 기타 합법적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소녀나 여인 ②사회적 전통이 짝으로 급하는 근친 ③독신을 맹세한 비구니나 그 외의 여자 그리고 국법에 따라 상대자로 삼지 못하도록 급하는 여자가 포함된다.

여성의 경우 결혼한 여자에게는 남편이 아닌 모든 남자는 부적절한 상대이다. 따라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한 정절 서약을 깨는 것은 곧 이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가까운 친척이나 독신을 맹세한 남자 등, 관습이 급하는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도 부적절한 상대이다. 성적 불륜 이외에도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결합은 계율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위반행위는 가해자에게만 해당하고 강제로 당한 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3. 바른 생계[正命]

바른 생계라는 항목은 우리가 생계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이 항목은 재가자와 출가자의 두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이 부를 축적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

치신다. 재물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획득해서는 안 되고, 평화적으로 벌어야 하며 강제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벌어야 하며 사기나 속임수로 얻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나 고통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만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다음 다섯 가지 생계 수단을 구체적으로 들고 이를 피하라고 말씀하신다.³⁾

재가자의 경우 ①무기 거래, ②생명체의 거래(도살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것, 노예 매매, 매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③육류 생산 및 도살업 ④독약 거래 ⑤술이나 마약 거래 또는 사기·배신·점술·속임수·고리대금업 등 부정직하게 부를 획득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출가자의 경우 「디가니까야」 「사문과경」을 보면 수도승이 삼가야 할 바르지 않은 생계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⁴⁾

이상으로 팔정도의 요소 중 계의 범주에 속하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에 대해 재가자와 출가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실천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팔정도의 요소 중 정정의 범주인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삼매(正定) 그리고 지혜(慧)의 요소인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에 대해서 알아보고, 팔정도의 요소들이 무르익어 궁극적 실재인 열반을 체험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3) 『증지부』 5법집 176경

4) 『증지부』 5법집 176경

5) 『증지부』 5법집 177경

6) 각육스님 역, 『디가니까야』, 초기불전연구원, 2010, pp.183~264

본무생사의 자유 本無生死

금정총림 前 방장
자유 큰스님을 찾아 뵈고...

경운 / 대교과(4학년)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도착한 포암산은 파란 하늘 아래 눈꽃이 한창이었다.

자유 큰스님은 18세에 출가, 법랍 77년, 세수 95세 노장 스님이시고, 밤하늘의 새벽별처럼 수행자의 밝은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큰스님이시다. 선지식을 뵈고 의지하여 공부의 힘을 얻고 깨침의 기연機緣이 이어진다면 그만한 복이 어디 있을까? 기연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헤아릴 수 없는 복과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데, 우리는 일단 들이밀고 만나 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따뜻한 유자차로 몸과 마음을 데운 후, 스님이 먼저 물어주셨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준비한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머리를 거치지 않은 그 순간 날것의 질문이 나왔다.

“스님, 여러 대중과 살면서 공부도 수행도 무엇 하나 지극하게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습니다. 스님이 초심 수행자이셨을 때, 어떤 굳센 발심을 하셨고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시 되물으셨다.

“공부가 안 된다고 하니 묻습니다. 공부가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배운 것이 수행의 밑거름이 되어서 마음도 잘 쓰고 생활도 잘 해야 하는데, 한마디 말, 행동에 생각이 일어나면 괴롭고 산란스럽습니다.”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머리 꺾고 출가한 승려이니 우선 불교를 공부해야 하지요. 무엇이 불교의 핵심, 근본입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8만 4천 책을 보고 깨친 것은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출가 동기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다 변하고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도 수없는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금세 없어지잖아요. 생각조차도 만생만사萬生萬死지요. 부처님은 도대체 생사가 무엇 일까를 추궁追窮하다가 마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 본래 생사는 없다, 본무생사本無生死.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효암에 있을 때, 대학생들에게 불교를 지도하는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어느 학생이 ‘도대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고 물었는데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사에게 물었어요.

‘처사님, 바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파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파도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처사가 답이 없어요. 내가 다시 질문을 바꿔 물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기 부채를 흔들어 보세요. 공기가 흐르는 곳에 바람이 있듯이, 마음 움직인 곳에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즐겁고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범부들은 파도라는 망상分別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붙잡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자가 도둑이 들어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예를 들어봅시다.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면 괴로운데 나를 대신해 보시하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즐겁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생각에 따라 고통이 낙락이 되고, 낙이 고가 되는 것이다. 생각은 절대 자유인지라 생각 한 번만 잘 하면 평생 고통 없이 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아차리고도 고통이 남아 있는 것은, 생각만 마음인 줄, 과도만 물인 줄 알아서 그렇거든요. 과도는 나고 사라지지만 물 자체는 그대로 불생불멸이잖아요.”

“무엇이 물입니까?”

“물은 습기가 많습니다. 모양이 여러 개입니다.”

“세수하고 물 마셔봐서 알죠? 축축하고 젖는 습성이 물이에요. 물질은 모양이 있고 감각이 없지만, 마음은 모양은 없고 알고 보는 감각이 있어요. 종소리를 알아듣고 향내로 꽃을 알고, 물의 차가움과 뜨거움, 바람을 느낄 줄 알잖아요. 감각에 부딪히자마자 마음에 연결되고 그게 뭔지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이지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자기 근본은 망각하고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욕심내고 갈구하고, 안 되면 성내며 온갖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딱! 하는 소리가 나면 저절로 들리고, 누가 때리면 아픈 줄은 누구든지 알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깨달음과 관계없이 본자구족本自具足입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과 같은 복혜福慧, 복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손수 <신심명>의 한 구절을 써 주시며 다시 말씀해주셨다.

지도무난 至道無難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유협간택 唯嫌揀擇 오직 간택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단막중애 但莫憎愛 미워하네 사랑하네 구별심을 내지 않으면
통연명백 洞然明白 모든 것이 막힘없이 뚫려 흰하게 된다.

“그 마음이란 놈은 본래 알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본래 자리에서 동하지 않고 분별의 과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하면, 그 생각을 훌훌 털어버리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칠 것도 없는 깨달음의 방법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육신 유지할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이 우리 출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같이 도를 깨치고 싶지 않아요?”

“깨치고 싶습니다.”

답을 올리면서도 부끄러워 얼굴이 발개졌다.

“지금 빨리 깨닫고 싶는데 화두도 안 들리고 공부도 안 되니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화두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 10년 동안 해도 안 되면 선지식을 찾아가라 하지요, 육조혜능스님이 5조 홍인대사 회상에서 디딜방아를 찧는 노동을 하며 깨달은 것은 잘 아는 일이지요? 사미계도 받지 않은 노행자(盧行者)가 도를 깨닫고 법을 이어받아 홍인대사의 가사 발우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뒤쫓아 가서 ‘저는 의발이 아니라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일러주셔서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니

‘그대가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려라. 불사선 불사악(不善 不思惡) -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때의 상좌의 본래면목을 나한테 일러보아라.’ 하니 도명선사가 홀연히 깨달아서 답하기를,

‘여인음수 냉난자지(如人飲水 冷暖自知,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육조스님이 ‘모든 부처님도 이것을 알았고 나도 이 문중에서 이것을 알았고 그대도 내 말을 듣고 이것을 알아차렸다.’

깨달은 사람은 선과 악의 분별없는 이것을 자신의 본래면목으로 알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걸 업신여겨 버리고 온갖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차를 마시고 차가운 줄 더운 줄 저절로 아는 이놈이 자신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궁금했던 것을 알았다고 하며 눈이 빛나야 하는 겁니다.”

“글과 머리로의 이해하는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마를 딱 치시며) 이렇게 때리면 실제 아프잖아요. 머리로의 아픈 줄 아는데 실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말입니까? 몸이 물속에 들어가면, 뭘



생각할 것도 없이 다 물에 젖어버리잖아요.

임제스님이 황벽선사에게 불법佛法의 적적대의의的大義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방망이로 20대를 맞았는데 세 번을 뵈고 육십 방을 맞았습니다. 결국 임제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자 황벽선사가 대우스님에게 가라고 일렀어요. 대우스님을 찾아가서 황벽스님에게 불법의 대의를 물었다가 늘씬하게 맞았는데 지금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우스님이 '이 정신 빠진 놈아! 황벽이 너를 할머니가 손자 다루듯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무슨 녀 빠진 소리 하고 있느냐?' 하는 호통을 듣고 그때 확 깨닫습니다.

대우스님이 '이놈!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보았는지, 그 일을 일러 봐라' 했더니, 임제선사가 말로 답할 수 없어 오른손을 들고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세 번 쥐어박았습니다.



보통 몽둥이로 맞으면 화내는 감정을 내지만 깨달은 사람은 '당신의 매질 덕분에 잠에서 깨었다'고 고마워합니다. 황벽스님은 임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장애물(언어와 문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알려 주셨지요. '내가 뵈니까?' 라고 묻는 그놈이 네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바로 그 마음이다.

본래면목을 찾으려고 계속 파도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파도치던 것을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파도가 점점 잦아들고 모든 생각도 없어지면, 아! 이게 남은 것, 본래면목입니다. 맞습니까? 생각이 일어난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도가 잦아들듯이 생각을 쉬어버리면 됩니다."

95세 노장 스님께서 세심하고 명확한 비유를 하며 달을 비춰주셨기에 손가락 끝만 바라보며 망상 분별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따뜻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두 번 세 번 다시 설해주시고, 알아들었는지 살피주시는 큰스님의 모습을 뵈며 무한한 감사와 더없는 존경을 느꼈다. 이근耳根을 통해 지나가던 알음알이가 스님을 친견하면서,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려는 마음의 노력을 불러왔다. 앞서저도 굴러 지빠저도 웃고 우는 파도 속에서 분명하게 눈떠 있는 나를 보는 날까지 선지식을 찾아뵈고 간절하게 법을 구해야 함도 알았다. 노력하지 않는 수행의 공덕은 없다. 어느 날 한 말씀, 한 계송, 기왓장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닫게 되기를 바라본다. ॐ



父母未生前
本來面目
真性

겨울철 시자侍者를 살며...

도선 / 사교과(3학년)



십화 3학년 도선

이번 칠, 율주 스님의 시자를 살게 되면서 나는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사집 반이 되면서 강원생활도 조금 익숙해지고 몸도 마음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던 나날들이었다. 초심初心은 어느 날은 왔다가 어느 날은 가버리는 바람과 같이 느껴졌다. 시자소임은 나를 갖출가한 행자와 같이 신선한 공기로 옛날의 나를 깨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 놓았다.

율주 스님의 모습은 나에게 교과서와 같았다. 하루하루 FM을 추구하는 생활, 학인 스님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아침예불, 발우, 상강례, 사시에불, 저녁예불을 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사경을 하시는 모습에서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얻을 수 있었다. 율주 스님의 완고한 모습이 아닌 유연하고 학인 스님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에서 시자를 살면 살수록 존경심이 우러났다. 또 시자소임 중 알게 된 것은 어른 스님의 모습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와 또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그것으로 마음을 밝히고 밝혀서 진정한 신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자등명 범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며 수행에 매진할 것만을 말했다. 그것은 부처님 자신을 신이나 왕으로 지칭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승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부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율주 스님의 2024년 신년 BBS 인터뷰 범문 중 내가 항상 되새기는 구절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발심은 진발심, 참으로 나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건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무상을 생각했을 때 제대로 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덧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정말 마음을 열고 나의 환경과 내가 할 일을 살펴봐야 되죠. 발심의 요건은 발보리심, 즉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허물 때문에 꺼림직하게 남겨둘 일이 아니라 그 허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남에게 그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덕을 베푸는 보살행을 하면 좀 꺼림직하고 무거웠던 짐처럼 있던 그런 짐은 자동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이 구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율주 스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발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다. 그리고 시자를 산 내게 ‘율주 스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야기할 때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은 그 사람의 행동과 얼굴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시자로 한 철을 산 내가 볼 때 율주 스님은 순수純粹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순수는 고통과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나오는 진정한 맑은 것이고,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신의 허물을 딛고 일어설 때 진정한 순수가 나온다. 나도 나의 허물을 깨고, 오랫동안 순수한 수행자가 되길 기도해 본다.

사미니 율의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제자가 스승을 모실 때 마땅히 네 가지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친애함이요,

둘째는 공경하고 따름이요,

셋째는 두려워하며 어렵게 여김이요,

넷째는 존중함이라.

이렇듯 스승을 시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큰 가르침이며 수행이다. 율주 스님을 모시면서 하루하루 쪽집게 강사의 개인교습을 듣는 느낌이었다. 스님으로 살면서 이렇게 대중 생활과 승가 생활에 대한 큰 가르침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다행히 운문사 학인으로서 한철 소임인 율주 스님 시자를 하게 되어 만나 뵈기 어려운 선지식에게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주신 것 같은 큰 가르침을 얻었다.

또 학인 시자로서의 임무완수를 위해 도와 주신 삼장원의 모든 어른 스님, 멘토가 되어 주신 상반 스님들, 도반 스님들, 치문반 스님들 덕에 나는 선타바仙陀婆¹⁾까진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는 간 듯하다. 선지식 만나 뵈기가 우담바라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율주 스님의 시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크나큰 행운이었다.

율주 스님, 저에게 부처님과 같은 하해河海의 은혜를 주시고 한 철 동안 시자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

1) 선타바仙陀婆: 신스크리트어로 소금·그릇·물·말[馬]이란 뜻이다. 열반경涅槃經에서 한 왕의 시종이 매우 영리하여 “선타바” 하고 부르지만 하면 밥을 가져오고, 또 부르면 차를 가져오고, 무엇이든지 임금이 생각하는 대로 다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지혜가 총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

- 운문사 문화부 소개 -

편집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일어난 번뇌, 일어난 지혜 다 기억나시는지요?

오늘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과연 오늘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의무교육을 받으며 자라셨다면 아마 대부분 오직 남이 불러주는 정보를 받아먹기만 하는 input 활동에 많이 노출되었을 겁니다.

과다노출로 찍힌 사진 본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냥 하얗습니다.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우리의 머릿속도 이러한 과다노출로 되려 백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도, 기억력이 안 좋아서도 아니라 엄청난 습력(習力)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생각의 흐름에 힘없이 당하고만 있기 때문에 분명 일어나고 있는 일도 돌아서면 기억이 나지 않곤 할 겁니다.

다행히 저희에게는 이 폭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글이나 그림의 형태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는 output 활동입니다. 이는 저희 운문사 문화부의 메인 활동이기도 하지요.

문화부에서 제작되는 계간지 「운문」에는 저희의 수행담과 소중한 외부기고 몇 편이 담겨 있는데, 운문사 방문객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찰과 포교당, 군법당, 교도소, 그리고 해외 각지에서 수많은 분들이 기쁘게 받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스스로를 생각의 주인으로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도반들, 대중들, 운문사 그리고 불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얼굴 모르는 누군가에게 법보시까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운문지에 글을 기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학인 스님들과 구독자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위해 운문지 기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화부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능소화를 그리며

명주 / 사집과(2학년)

바람이 살을 저미는 차가운 계절에
능소화 그대를 그리오

여름 노을같이 붉은 얼굴로
나를 맞이하더니
가지만 앙상히 남기고
그대 어디로 가시었소

눈 먼 나는 사바娑婆에 두고
혼자 피안彼岸으로 가시었나
도솔천 미륵불 앞에 앉았는가
극락에서 아미타불 만나 뵈고 계시는가

시절 지나
멀어진 인연
다시 찾을 길이 없건만은

능소화여
그리운 능소화여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약속도 없이 무덤처럼
그대를 기다리겠소 ૮

Renunciation More Than a Simple Lifestyle Change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넘은 경지- 출가

인성 / 사집과(2학년)

Renunciation is more than a simple lifestyle change! It is a mode of complete mind and body transformation in order to align with humanity's true life goal, attain enlightenment and help others do so as well. Lifestyle is "the habits, attitudes, tastes, moral standards, economic level, etc.,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mode of living of an individual or group" (dictionary.com). On the outside, the life of a Saṅghī can look like a simple lifestyle change. However, the core difference lies in the mindset and commitment to practicing detachment to one's ego to be Buddha. In today's fast-paced, consumer-driven world, without correctly practicing mindfulness under the guidance of a teacher, one's life choices are prone to be clouded by the six root delusions: attachment, anger, ignorance, pride, doubt, and wrong view, greed, hatred. This clouded mindset is compared to that of fire burning down a collapsing house in the Lotus Sutra where ignorant children are playing oblivious to the danger that surrounds them. The collapsing house symbolizes the triple realm world and the children represent all sentient beings that must make their escape. Before renouncing the secular life, I too was oblivious to the dangers of the lifestyle I was living by and I entered the world of Buddhism.

출가를 단순한 라이프스타일만의 변화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출가란 몸과 마음을 모조리 재정립하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란 부처를 이룸과 동시에 다른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衆生,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함을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길이기도 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의 사전적 인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 방식을 구성하는 습관, 태도, 취향, 도덕적 기준, 경제적 수준 등'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출가한 삶을 그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다는 것은 '집착'을 버리고



삼화 2학년 정우

'나'라는 것이 애초에 허상임을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 깨달음을 다른 이와 나누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스승의 올바른 지도 아래 꾸준한 마음챙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뿌리 깊은 업 - 탐貪 · 진瞋 · 치癡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 등으로 인해 길을 잃은 채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서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 이릅니다. 불난 집에서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놀고 있는 아이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난 집은 삼계三界를 뜻하고, 불은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앞서 말한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 번뇌에 빠져 실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며, 놀이에 정신없이 빠져 있는 아이들은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중생을 상징합니다.

Before I became a Buddhist novice, I was on the route to what I defined as a successful life based on the society I grew up in: attend a reputable college, find a job with a high salary, buy a house, get married, have kids, etc. Living by this blueprint, I carefully set my short-term goals, foreseeing the results of the choices I made. Surely enough, everytime I hit a 'checkpoint' such as getting my bachelors in industrial design and graphic design or my first job in New York or starting a romantic relationship, the feeling of fulfillment and happiness didn't last long and my 'monkey mind' need to grab hold of the next thing that would make me feel happy. I expected happiness to come from outer sources and actively consumed culture media, trending product goods and food, relationships, etc. As a result my identity was built with this clouded mindset, thinking this lifestyle would help me succeed as a professional designer and reach ultimate happiness.

이처럼 불난 집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의 과거를 짧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제 라이프스타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미니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자라온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높은 연봉 받기, 집 구매하기, 가족 꾸러가기 등 이 기준에 맞추어 저의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모든 삶의 결정과 그 뒤를 따르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 학사를 받았을 때, 뉴욕에서 첫 직장을 구했을 때, 연애를 시작하였을 때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에 제가 느끼는 성취감이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저는 마음챙김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숭이 마음(번뇌로운 마음으로 나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원숭이에 비유한 것)'에 휘둘리며 또다시 새로운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 다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밀레니얼인 저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그 결과 온라인 미디어, 트렌디한 제품과 음식, 사람 관계 등의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저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갔고, 이러한 것이 제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하는 길이자 삶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All this had changed when in 2016, as the law of causality would have it, my deep desire to find true happiness led me to Barnes and Noble on 5th Ave New York where I came across 'The Power of Now' by Eckhart Tolle, intrigued by the idea of attaining enlightenment through the focus on the inner rather than the outer, I delved into literature and media on spirituality and eventually made my way into the world of Buddhism. Without proper guidance, I approached Buddhism with a philosophical lens; understanding the Dharma conceptually and found its application to my daily life to be limiting. Not shortly after, the law of causality nudged me through a whirlwind of experiences to where I am now (nirvana - the most sought after Sangha college for female Buddhist novices in South Korea).

그러던 중 2016년 가을 즈음,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을까요? 인연법이 저를 뉴욕 5번가에 위치한 반즈 앤 노블 (Barnes and Noble: 미국의 서점)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외면이 아닌 내면의 집중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내용에 설렘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적 발달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미디어를 참고하였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는 불교 공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글을 통해 오로지 학문적인 측면으로만 접하였기 때문에 개념만 어렵듯이 알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적절한 스승의 지도 없이 불법佛法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구니를 육성한 운문사승가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I like to refer to the period of time between renouncing the secular life to where I am now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 to hitting the reset button on a computer. Although as much as I wished it was as immediate and non-painful as pressing a button, reality was, I had to – and still to this present day – go through the painful experience of deconstructing the identity accumulated for the past 39 years to make room for a new way of being. By go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becoming a Surim myself, having met great teachers like my Karma Surim (Guidance master), Sutra Masters, and Dharma Brothers, I am beginning to understand the Dharma on a deeper level – beyond the limitation of words. By continuing to take refuge in the Three Jewels, I hope I too will be of guidance to all sentient beings on their journey towards enlightenment.

저는 출가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버튼을 누르는 행위처럼 간단한 일이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9년간 쌓아온 저의 정체성을 사그라뜨리고 새로 쌓아가는 여정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아가 강한 제게 다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하지만 스님으로서 부처가 되어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생각하며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은사 스님과 강원의 교수 스님들, 심지어 도반 스님들까지 여러 선지식을 만나 스님의 길을 걸어가 보니 이전 조금이나마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깊은 차원에서 불법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승에 귀의하고 모든 중생의 성불로 향하는 여정의 동대가 되고자 발원합니다. ☸



봄이면 피는 치문꽃 새싹

치문반

이틀 내리 비가 오다 오늘은 새벽에 안개가 자욱히 내려 앉은 걸 보고 날씨가 좋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산행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이것 또한 복이 많은 치문반입니다. 행자복을 입고 사리암에 왔을 때 '꼭 수계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승복을 입고 나반존자님과 산신각님께 인사드리니 올라오면서의 피로감이 췌-악 사라집니다. 산신각 앞 명당자리에서 앞을 내다보니 '고악아암高嶽峨巖은 지인 소거智人所居요 벽송심곡碧松深谷은 행자소서行者所棲니라' 라는 원효대사님의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습의교육을 받으며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자꾸 가출하는 마음을 붙잡아 앉히느라 지쳐 있었는데,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께서도 여기를 많이 찾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리암 원주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점심공양은 개학한 이후로 가장 맛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범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발원을 해봅니다.

문수선원에 참배를 갔었는데 소나무 아래에 핀 진달래꽃이 우리 치문반을 반겨 주었고, 그곳 원주 스님 역시 저희를 흔연히 맞이해 주시고 맛있는 차와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운문사가 선원까지 겸비한 도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스케줄과 같은 치문반 생활을 시작하면서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운문사 주위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곳들은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안식처가 되어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4년의 학인생활이 기대됩니다. - 재현



3월 18일 처음 운문사에 도착했을 때는 무대세 트장 같은 건물과 모래흙이 낫선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지만 열흘 정도가 지난 지금은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세세한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감사한 마음과, 스님들의 마음을 저도 따라 배워야겠다는 분발심도 일어납니다. 훌륭한 수행자가 되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운문사와 어제 둘러본 사리암, 문수선원, 그리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과 맑은 계곡은 스님들의 수행과 고고한 성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의 습의과정이 어렵고 가르침대로 따를 수 없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지만 4년 후 해님이라는 수행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물들어 있을지 가슴 설렘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님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것에 습의가 있는 낫선 도량과 많은 스님들과 함께한 지 어느새 2주가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 뒤쳐져서 따라가는 사람, 오늘도 제각각의 색깔을 지닌 치문반 16명이 하나의 큰 유기체와 같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빈틈없이 뻗어온 하루 중에서도 순간 한숨이 나오다가도 웃음이 터지는 시간들이 조금씩 몸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신기하리만큼 해나가게 되는 것도 치문반 모두의 근본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겠지요.

아직 정미롭지 못하고 실수가 많아 부전 스님들이 경책할 때가 많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





하고 자비로워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술선 수범하는 모습에 스스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새싹 같은 어린 도반부터 나이 지긋한 도반들까지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말없이 보듬어주며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운문사 도량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이 기품 있는 예술작품과도 같아서 정량에 오가는 짧은 순간에도 만물에게 큰 선물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전국의 맛집 부럽지 않은 공양시간에는 무엇보다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어서 이와 같은 마음을 베풀며 정진해나가야겠다는 발심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봐주시는 어른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적의 환경을 위해 마음써주시는 소임자 스님들,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상반 스님들, 아직은 조금 낯선 도반 스님들과 함께하게 될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 혜엄

입방 후 신중기도 중이었습니다. 씩씩한 엽불소리가 이어지던 중에 문득, 내 몸통 전체를 울리는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지, 옆자리 도반의 소리인지, 대중 전체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중의 목소리에 내 목소리 하나 더할 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 목소리, 남의 목소리, 대중의 목소리의 구분 없이 그저 엽불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환희로웠고 행복했습니다.

한 칸 지대방에서 열여섯이 복작복작하면서도 종종 그렇게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살기 위해 운문사에 왔구나 생각합니다. 나다, 남이다, 대중이다 할 것 없이 그저 모든 것 속에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 지현





사시장춘 四時長春

- 우리 마음도 늘 봄처럼 -

편집부



회주 스님께 인사 오신 전국 비구니회 회장단 스님들



작년 5월에 착공을 한 역사문화관은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중님, 산신님, 아름다운 운문사를 지켜 주세요



화엄반 - 회주 스님, 탁발 잘 다녀오겠습니다~



봄달기, 아직 살아 있네~



천불도 같은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 모습



사교반 - 오늘도 대중 스님들이 공양할 음식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요



진달래로 한 마음이 된 어른 스님과 학인 스님들



드라마 세트장 같은 수목원에서 쑥 캐기



치문반 -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즐거워요



사집반 - 신임생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청풍로 큰방을 달구는 중

내 속에 숨어 있는 나

삼우 / 사교과(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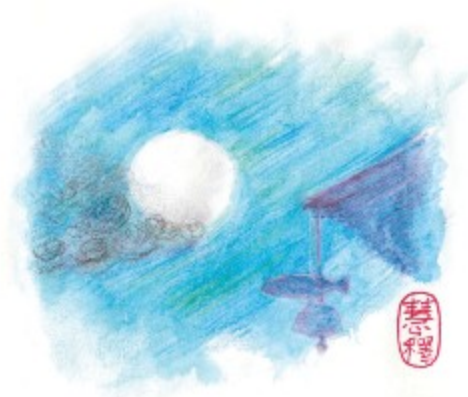
운문사 수목원은 꽃피는 4월이면 이곳이 극락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답습니다.

길게 늘어진 수양버들 뿔뿔부터 이목소를 따라 길게 줄지은 노란 개나리꽃, 그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과 징검다리의 풍경들. 저마다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수놓아집니다.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사람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말에 잘 꼬달리는 편입니다.

그로 인해 제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맛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우, 3학년 해석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 를 맞아 정초기도로 삼천배 3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행자 때 백일기도 경험도 있고, 지난 칠 '생사의 장' 에 이어 '자비참 기도' 를 회향하면서 안정된 마음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저는 정초기도를 하라는 어른 스님의 말씀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백일도 했는데 3일 쯤이야' 하며 아주 가볍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 행자님이 백일기도를 끝내고 제게 막 습의를 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대중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 행자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님과 의 소통은 쉽지 않았고,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행자님의 말에 휘둘려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행자님은 묵언이 기본이며 할 수 있는 말은 딱 세 마디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

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고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습의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시자 스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감 스님께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앞세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자님과 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중 때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저는 말대답하는 행자님의 태도가 이해 되지 않았고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났습니다. 소임자 스님께서서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냥 두세요.' 라고 하시며 너무 애쓰지 말라 하셨지만 그 한두 번이 건건이 다른 것도 있었고, 유난히 책임감이 강한 저는 행자님의 습의는 학인의 몫, 즉 나의 몫이라는 사명감에 대응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기 션' 행자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창피했지만 '절대 안 속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반응하는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을 냈는지 습의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기가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순조로울 리가 없었습니다. 기도 첫날 법당에서 천베를 마치자마자 습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 행자님 태도에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큰 소리에 행자님의 기세가 한 풀 꺾인 듯 했으나 제 마음은 더 심란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들뜬 마음을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별심과 분한 마음 때문에 첫날은 찻찻하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은 행자님에 대한 번뇌를 철벽 방어해야 했기에 최대한 큰 소리로 부처님을 불렀고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부를 때마다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번뇌가 끼어들지 못하게 오로지 부처님께 악착보살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편안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법당에는 제가 부르는 부처님 명호만 울릴 뿐 절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공간도, 나라는 생각도, 그 어떤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떤 번뇌도, 생각도 없었지만 분명히 나를 지켜 주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법을 지니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희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까지도 스님 은사 스님을 비롯해 일체 만물의 공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메어 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라고 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쓰는 시간이라고 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한 끼 공양을 위해 전 대중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귀한 공양을 받고 대중의 공덕으로 기도하면서 분심을 일으키려는 어리석음에 절로 참회의 눈물이 났습니다. 간절함이 올라오자 기도에 활기가 생겼고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내가 출가한 이유부터 지금 내가 피로운 이유까지...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냥 내 말대로 안 하는 행자님에게 화가 났을 뿐입니다. '내가 위' 라는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평소 저는 윗사람에게는 '에' 하는 편입니다. '이거 하세요' 하면 '네', '저거 하세요' 해도 '네'. 반대로 아랫사람에게는 내 방식을 강요하는 독재 기질이 있다는 것을 강원에 와서 알았습니다. 모두에게 자상하길 바랐지만 저에게 그런 자비심은 없었고 기분 나빴던 그 지점을 잘 살펴 보면 항상 '나' 라는 '아상我相' 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윗사람을 구분하는 기준도 나로부터 위아래로 갈라진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고, 곳곳에 숨어 파리를 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나라는 아상이 이렇게 강한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만 행자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행자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지만, 지대방에서는 도반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이었고, 출가 전에는 속가 어머니와의 관계였고, 나를 괴롭혔던 직장상사와의 관계였으며, 내가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내 모습이었습니다.



삽화. 3학년 혜석

사교반에 올라와 첫 시간에 금강경 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파이집破二執 현삼공顯三空]

이집二執: '아집我執' 과 '법집法執' 을 타파하면

삼공三空: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 이 드러난다.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공' 이요,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했다는 생각 자체도 공한 자리가 드러나니

그 자리가 바로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일어나는 부처의 자리”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경을 볼 때는 그 마음도 경에 비취 보아야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강경 대지를 듣는 순간 제 속이 땡 뚫렸습니다. 나에 대한 '아집' 과 내 말이 옳다는 '법집' 을 철석같이 붙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만약 우리 행자님을 좀 더 늦게 만났더라면 제가 공한 이치로 행자님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마쳤을 때 행자님에게 무뚝뚝했던 저의 말투는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행자님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

었습니다. 다만 놓쳤을 뿐입니다. 걸림 없는 자유로움과 객관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정진에서 나옴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절을 하고 화두참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만배를 통해 '아상我相' 이 뺏속 깊이 박혀 있다가 때가 되면 언제든 튀어나온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경계에 속지 않기 위해 정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량석이 올리는 순간부터 예불, 발우공양, 상강례, 수업, 율력 등... 매 순간 '번뇌' 에서 벗어나 부처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나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로 잘 돌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속에 어떤 내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안다는 것! 일미-一味 중의 일미입니다.

아주 잠시나마 맑고 청정한 그 자리를 볼 수 있도록 해준 모든 인연들께 감사드리며 저 때문에 마음고생 했을 행자님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인연공덕으로 살아감에 감사드리며 이 마음 또한 일체 중생들께 회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가 전부터 자주 되뇌었던 법륜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 것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아니네 ॥

관계 속의 행복, 홀로의 행복

혜건 / 대교과(4학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법문은 행복하고자 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저의 경험담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을 참 쉽게 좋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옆에 앉았던 분이 조금만 놀아줘도 그분이 너무 좋아져서 내릴 때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마음을 뺏기던 그 어린아이는 그만큼 자주 슬픈 이별을 경험했겠지요.

하지만 무슨 복이 있어서인지 어딜 가나 훌륭한 스승들과 좋은 분들을 만났기에 그런 작은 이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인지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쾌한 새로운 만남과 순간순간은 조금 슬프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무렇지 않은 이별만을 반복하며 살다가, 학교라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들어서면서 관계의 끝에는 물리적인 헤어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라는 정신적인 조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분명히 나에게 사랑스러운 눈빛과 달콤한 말로 기쁨을 주던 친구가 오늘은 사랑스럽지 않은 눈빛과 아주 쓴 말로 나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고 그때마다 정답을 맞출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상대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원인은 날마다 달랐고, 제가 느낀 배신감



에 비해 심지어 사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제가 좀 귀찮았거나, 저보다 더 흥미로운 다른 대상이 생겼거나, 제가 다른 친구와 더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일어났거나, 저를 비방하고자 하는 다른 친구가 하는 사실이 아닌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단지 아침에 엄마한테 혼이 나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았던 겁니다.

조금 더 자라면서 저는 친구를 길들이는 8만 4천 가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상대방의 태도는 늘 저를 승리자로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누리는 게 더 많은 제가 더 의존하는 쪽이 됩니다. 하이라이트로, 더 이상 제 인생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로 자리 잡은 저의 메이트는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별형태로 저를 떠나죠. 한 명, 두 명, 세 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은연중에 제가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일지 모른다는 숙고도 해봤지만 연기법도 모를 때였고, 모르니 신심도 없어 그저 이해 안 되는 이 세상에 대해 서운하고 서럽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상웃따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해주신 대나무를 타는 곡예사의 이야기(S47:19 세다까 경)입니다.

옛날에 대나무를 타는 한 곡예사와 메다까탈리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곡예사가 제자와 함께 공연을 하기 전에 제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라, 착한 메다까탈리카여. 그대는 내가 대나무를 탈 때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잘 지켜보고 보호하라. 나는 그대가 대나무를 탈 때 그대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대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메다까탈리카는 자신의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스승님께서서는 스승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자신에게서가 아닌 타인



에게서, 즉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연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이 절대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만 하고, 우리의 마음도 늘 조건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다가 한계를 느낍니다. 이 한계는 고통입니다. 우리들의 경우 이렇게 철저한 고통을 경험한 후 홀로의 행복을 찾아 출가를 한 거죠. 그런데 모든 관계를 끊고 삭발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갈애와 생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지 때문에 이 옷을 입고도 우리는 아직 타인에게 인정,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홀로의 행복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의 출리입니다. 세속에서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몸을 비비며, 친구들과 손잡고, 강아지와 뽀뽀하며 지내던 시간들이 기억나시나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벗어난 상태를 몸의 출리라 하는데, 대중과 함께 살아도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며 사는 것 또한 몸의 출리라고 합니다. 수행을 위함이 아니고 번뇌가 대중생활을 불편해 하니까 홀로 사는 것은 몸의 출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이 다 된 사람이 아니면 승가와 함께 살기를 권하셨습니다.

둘째, 마음의 출리입니다. 몸의 출리만으로는 마음의 장애요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명상주체에 마음을 전념함으로써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들뜸, 의심 등의 번뇌가 고통임을 자각하고 장애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이 마음의 출리의 시작입니다. 몸의 출리는 그나마 쉽지만 마음의 출리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오랜, 또는 여러 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오온五蘊으로부터의 출리입니다.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즉 오온의 무상無常, 고쁨, 무아無我를 통찰하여 오온의 소멸인 열반을 성취한 때가 오온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몸의 출리가 되어야 마음의 출리가 가능하고, 마음의 출리가 완성되어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모든 고통의 원인인 오온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의 행복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 홀로의 행복으로 '자리自利'를 성취한 만큼 '이타利他'로 회향하는 것이 저희 출가자의 목적이겠지요. 취착 없는 '자애'와 '사랑'으로 홀로의 행복을 관계 속의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고통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 위해 '강원'이라는 이 완벽한 환경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그럼 다 같이 공덕 회향 후 범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행하고, 계를 지키며, 범문을 설하고 들은 저의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슬픔이 없는 열반에 이르기를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ॐ



일타스님의 『시작하는 마음』

도현 / 한문불전대학원

반갑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녹고, 초목이 힘껏 물을 머금어 연듯빛 새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이번 갑진년 청룡의 해 봄에 소개시켜 드리 고자 하는 책은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조금은 오래된 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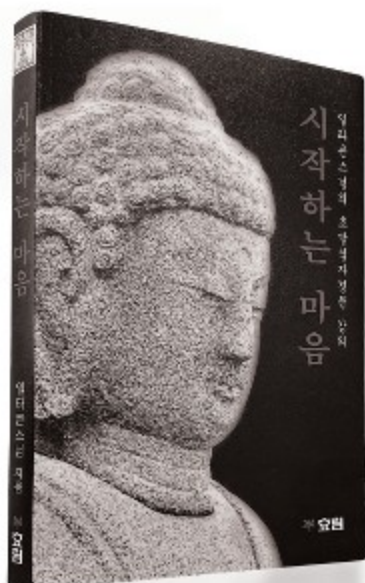
책 소개에 앞서, 우리나라 모든 불교도의 최초 입문서로 『초발심자경문』이 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은 고려 지눌스님의 「계초심학인문」, 신라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고려 야운대사의 「자경문」이 세 가지를 후세에 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으로, 출가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들이 명심해야 할 올바른 수행 자세와 기본적인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의 글입니다.

『시작하는 마음』은 『초발심자경문』 중 첫 번째로,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저술한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智訥스님의 『계초심학인문識初心學人文』에 대해 일타스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시작하는 마음』은 일타스님의 저서로 효림출판사에서 1993년 초판되어 2018년부터 개정판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서문, I.해제, II.수행인의 근본자세, III.일상생활 속에서, IV.예불과 참회, V.안과 밖을 한결같이, VI.법문 듣는 법, VII.간절히 힘쓸지어다, 부록(계초심학인문 독송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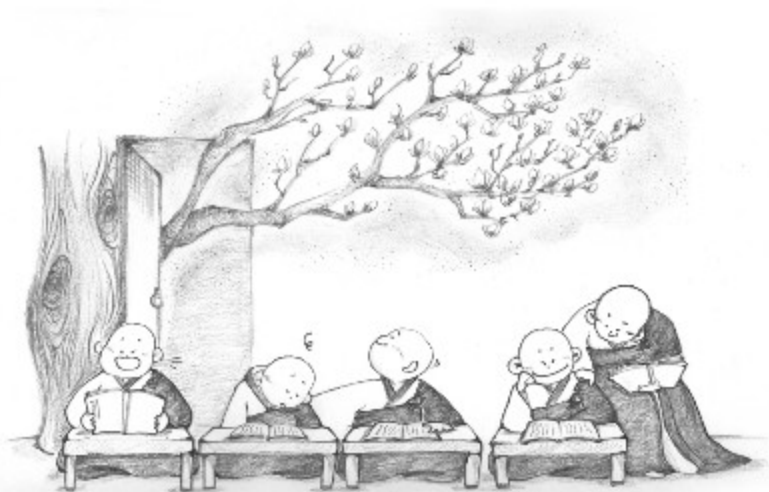
제목부터 시작하는 봄에 어울리는 책~!

『시작하는 마음』은 일타큰스님께서 앞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듯한 문장과 옛날 우리나라와 중국, 부처님 당시의 일화 등의 풍부한 예시로 이해하기 쉽고,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초심학인문』에 담긴 요긴한 뜻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언제나 시작하는 그때와 같이 새롭게 다듬어 보자. 그렇게 할 때 이 공부는 틀림없이 부처를 이루는 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이여, 항상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것은 비워 버리고 순수한 초심자가 되자. 부디 ‘초심’을 마음 깊이 새겨서 진중히 진중히 정진하도록 하자.” - 서문에서 -

| | |
|---------------|------|
| 천리길을 가고자 할진대 | 欲行千里 |
| 첫걸음이 중요하듯이 | 初步爲貴 |
| 일념으로 시작하는 마음이 | 一念初心 |
| 등정각을 이루어 내느니라 | 成等正覺 |

이 한 권의 책 - 『시작하는 마음』을 통해 올바르게 정립한 초심을 한결같이 유지하시어 불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_()_ ☸



삼라 서주

비움의 미학

풍요롭다 못해 모든 것이 과잉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까운 걸 잘 모르다 보니 버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세대일 것 같지만, 아무리 비우고 비워도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걸 보면 무언가를 버리는 것보다는 취하는 게 더 익숙한 중생이긴 한가 보다.



운문사는 2024년에 들어서면서 정리의 해가 시작되었다. 곳곳에 물품들과 자료들의 정리가 절실함을 느낀 사중에서는 팔을 걷어붙인 소임자들에게 각자의 정리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참 방치한 채 지내던 자신의 방을 모두 한 번쯤은 정리해 본 적이 있겠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정리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면 쓰레기나 존재가치가 떨어진 것들을 없애려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옛것들을 구경하며 추억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다. 손에 잡히는 물건들이나 오래된 편지, 사진앨범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래된 USB 스틱 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noname CD 한 장을 발견해 컴퓨터에 삽입했을 때 증발해버린 시간을 기억하는가?

물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의 정리가 만만치 않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원의 공간에 있는 디지털 자료들의 정리를 시도해 보았는가? 예를 들어보자. 필름카메라보다 디지털카메라가 좋은 점은 완벽한 한 컷을 찍기 위해 천 장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 한 장을 선별한 뒤에 나머지 999장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사진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한 통을 보낼 때 약 4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한다. 이메일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버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스팸메일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만 연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3,300대가 넘는 디젤 차량이 도로에서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버금간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비움, 공조, 무소유, 미니멀리즘 - 분명 이 개념들이 더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의 키워드로 인식되곤 하지만, 이 인식이 시각적·물리적 차원(색色)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신적·실천적 차원(수상행식受想行識)까지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심해 봐야 한다.

신학기가 되면 너도나도 특별할인을 내세우며 물건을 판다. 낡은 걸 버리고 무조건 새것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낡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지, 원래 필요없던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보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한 치 앞만 내다봐도 우리는 이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고 나 자신도, 내 이웃도, 더 나아가 이 지구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참에 필요없는 물건들과 더불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도 화끈하게 버릴 수 있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해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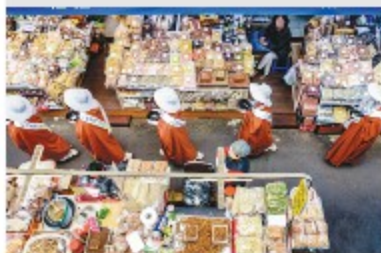
- 슷타니파타 ☸



▲ 관음당 지안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학술대회



▲ 신중기도 입제



▲ 회암반 자비탁발



▲ 치전 소나무 막걸리 주기



▲ 전국비구니회 회장단 스님들과의 간담회

운문소식

- 3월 18일 관음당 지안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학술대회에 진성 주지 스님 등 교수 스님들이 참석하였고, 일진 율주 스님이 논평을 하였습니다.
- 3월 19일 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신중기도 입제가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1일 3일간의 신중기도 회향 후 소금 문기가 있었습니다. 4급 승가고시에 영덕 학장 스님이 고시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3월 25일 ~ 4월 2일 영축총림 동도사에서 봉행된 제4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일진 율주 스님이 니존중아사리로, 영덕 학장 스님이 교수사로 참석하였습니다. 운문사 종업생 스님 15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3월 26일 전국비구니회관 민불전에서 열린 제18차 비구니회 정기총회에 교수 스님, 대학원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27일 치문반 스님들이 사리암과 문수선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3월 28일 마곡사에서 개최된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에 진성 주지 스님을 비롯해 어른 스님들과 대학원, 학인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30일 진달래 화전 부침이 있었습니다. 치문 사집 스님들이 준비해준 진달래로 사교반 스님들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저녁예불 후 신입생 환영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일 화엄반 스님들이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으로 자비탁발을 다녀왔습니다.
- 4월 4일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6일 속 깨기 대중울력이 장군평에서 있었습니다. 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1일 삼월 삼짇날 연례행사인 치전 소나무 막걸리 주기가 있었습니다.
- 4월 12일 저녁예불 후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법사 스님: 화엄반 선혜, 혜건스님, 사교반 삼우, 해명스님, 사집반 정견스님)
- 4월 13일 범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5일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과 부회장 스님들이 운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4월 16일故 운산 학장 스님의 1주기를 맞아 대중 스님들의 금강경 독송이 있었습니다.
- 4월 16일 ~ 19일 봉녕사에서 봉행된 제32회 식자마나니 수계산림에 일진 율주 스님이 니존중아사리로, 영덕 학장 스님이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사교반 9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4월 24일 학인 스님들의 관물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물건들의 정리정돈 상태와 불필요한 물건들의 소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4월 26일 봄철 중강일입니다.
- 4월 27일 제42회 비구니 교우회가 운문사에서 있습니다.
- 4월 28일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4월 29일 30일간의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상천포 죽림사
- DK 황용원
- 삼신사
- 현정스님
- 김길용
- 김성옥
- 김현주
- 문수정
- 붓다선원 법동
- 윤희숙
- 이경미
- 이정숙
- 정해옥
- 조서영
- 조정일 (대인경)
- 주건우
- 최선옥
- 최오현
- 하옥희
- 한미영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운문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①주소 ②수량인 ③부수 ☎ 010-7403-7118

*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정기구독자 분들도 편집실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계 이야기



운문사 대웅전 벽화

생사고해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기 위해
지계라는 부낭浮囊을 타고 가고 있는 수행자 일행.
우리 마음 속의 번뇌에 비유한 나찰이 부낭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는 대답에 반만, 삼분의 일만,
마지막에는 바늘귀만큼만이라도 내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바람이 새어나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면하지 못하기에
끝까지 거절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은
계율을 수호하는 마음을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해야 함을 보여준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11권 「성행품聖行品」 中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두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최잔근목의한림 摧殘枯木依寒林
 기도봉준불변심 幾度逢春不變心
 초객무지유불고 樵客遇之猶不顧
 영인나득고추심 郢人那得苦追尋

썩어 버려진 다른 나무가 씨늘한 숲 의지해 갔더니
 마음 번치 않고 밋이한 품이 몇 번이더니
 나무꾼도 지나면서 거들떠보지 않거늘
 대목인들 어찌 애써 찾아 행거겠는가

- 대애법상 大海法常 戒송가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불호·통권 제167호·2024년 4월 25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일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혜건 / 편집위원·선혜, 혜석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혜건 / 편집디자인·디자인마루 (053)426-3395